

풍성한 바다는 스스로 만드는 것

발로 딛는 잠녀의 삶=제주시 구좌읍 하도어촌계

등록 : 2008년 08월 18일 (월) 16:17:00
최종수정 : 2008년 08월 18일 (월) 16:17:00

고미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

제주시 구좌읍 하도어촌계

**도내 최다 잠수 보유...상대적으로 '좋은'해산물 수입·바다 변화 적응하는 법 배워
“행정 의존’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”...자생력 키우는데 지원 집중해야**

옛날 어머니는 바다가 주는 그대로에 만족하며 살았다. 물질 고되면 고될수록 숨비소리는 가늘고 또 깊어졌다.

지금 어머니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시작했다. ‘잠녀’라는 직업을 내놓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다와 동등해지는 긍정적 시도를 시작했다.

답을 얻는다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화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‘내일’을 꿈꾸기에 충분하다.

△ 바다 열고 풍성한 시도

지난해 하도 바다에는 산타 잠녀들이 떴다.

바다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이색 잠수경연을 통해서다. 1등상으로 가스레인지가 걸린 소박하면서도 살뜰한 행사는 그 이면에 깨끗한 바다 농사를 위한 ‘터잡기’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.

‘해녀항일운동’의 발상지인 하도는 도내에서도 잠녀수가 가장 많다.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잠녀 중 가장 고령인 87세 고해생 할머니가 이곳 하도 출신이다.

현재 이곳 잠녀는 401명. 잠수를 해서 소라나 전복을 따는 헛물 작업을 하는 잠녀수만 250명이다.

이곳 역시 ‘고령화’를 피해가지 못했다. 70대가 171명(43%)·60대가 134명(33%)로 10명중 8명은 60대 이상이다. 40대도 29명이나 되고 50대가 67명이지만 전체 잠녀 수를 감안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.

마을별로는 창흥동·동동·신동·면수동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50~60대 잠녀가 많고, 서문동·서동·굴동에서는 70대도 정당한 편에 속한다.

많은 잠녀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. 아직 물질을 할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.

하도 어촌계는 연간 바다수입만 15억원에 이른다. 단일 어촌계로는 도내 제일이다. 도내 어장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.

해안을 따라서 6.2km, 직선거리로도 6km에 이르는 도내에서 가장 긴 어장은 그 면적도 579ha로 넓은 편이다.

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구당 평균 해산물 소득이 2153만원이나 된다. 바다 사정은 변화무쌍해 해마다 많이 잡히고 덜 잡히는 것이 있지만 비교적 종류별 수확이 좋았던 2005년도 성적표는 톳 4만7130kg·천초 5만5740kg·감태 1만848kg·소라 4만7758kg·전복 68kg·오문자기 4451kg·성게 892kg·해삼 1203kg·문어 1899kg가 잡혔다. 바다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서는 부러울만한 성적표다.

△바다와 발맞춰 달려져야 산다

취재차 방문했을 때 임백연 어촌계장(48)이 내민 것은 파워포인트로 말끔하게 정리된 어촌계 자료였다.

‘풍성한 어장은 우리가 만들어간다’는 부제가 달린 자료는 어촌계의 변화를 위해 임 어촌계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.

임 어촌계장은 현재 도내 어촌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‘1차 산업은 보상과 지원으로 유지된다’는 행정 의존적 사고를 꼽았다. 잠녀수가 줄어들고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변동폭이 큰 수산물 가격 등도 문제점으로 포함됐다.

임 어촌계장은 “막상 어촌계장직을 맡고 나니 어떻게 하면 예산 사업을 잘 받아 오는가로 능력이 평가되는 등 적응하기 힘들었다”며 “풍성한 바다를 위해 무엇이든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나니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”고 말했다.

어장 관리 등 바다 관련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때문. 자원 증식에 대한 의식도 조금씩 바뀌었다.

임 어촌계장은 “어촌계를 중심으로 제주 바다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어촌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일방적인 정책 지원이 아니라 어촌계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책 등을 만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‘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’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어촌계이며,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(www.haenyeo.go.kr)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.